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동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서울시교육감 후보

발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제목: 어린이·청소년 인권 신장 정책협약식 참여 요청

날짜: 2012년 12월 4일(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010-6214-3550)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교육·인권·청소년 단체들이 함께 인권이 꽃피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정착 지원 △학생인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 △“폭력의 교육, 이제 안녕 :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10가지 약속 운동 내용은 별첨)

2. 오는 12월 10일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해 각국 정부가 힘쓸 것을 다짐한, 가장 보편적인 인권 문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정비하였고, 그 뒤를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인권조약들이 채택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의 모법(母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흐름은 유엔으로부터 '한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3.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기준에 따라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노

력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저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6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을 모시고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협약식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4. 아래 제안된 정책협약식 일정과 협약서 초안을 참고하시어, 협약식 참석 여부를 12월 5일 (목) 오후 6시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64주년 기념
서울시교육감 후보 초청
어린이·청소년 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 및
‘폭력의 교육, 이제 안녕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서명식

- 때 : 2012년 12월 10일(월) 오후 1시
- 곳 : 광화문 광장
- 순서:
 1. 정책협약의 취지
 2. 교육감 후보 참가자 발언
 3. 협약 체결식
 4. <폭력의 교육 이제 안녕 :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서명식
 5. 기자회견문 낭독
 6. 퍼포먼스

<협약서(안)>

어린이·청소년 인권 신장 정책협약서

201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정 6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은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교육청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130만 서울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비롯하여 학생 인권이 교육의 전 과정에서 온전하게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경쟁주의 교육은 배우는 기쁨, 가르치는 긍지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귀족형 사립학교, 고교 서열화, 일제고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교육에서 학생의 자리는 객석이 아니라 무대 위여야 합니다. 학생이 교육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치와 학교운영 참여, 교육정책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인권은 시스템입니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살피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학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하나.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삶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 소수자 청소년, 제도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인권은 문화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시민 사회에 대한 인권/반차별 교육과 인권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공동대표 (서명)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 (서명)

(※ 동의하시는 후보 이름 가나다순 기재)

<10가지 약속 서명 문안>

폭력의 교육, 이제 안녕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연결짓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이유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정답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될 때 진정한 배움이 싹틔웁니다. 강요와 통제에서 벗어나 자존과 자율을 익힐 수 있는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 다름을 틀림으로 치부하는 것, 그것이 곧 차별의 끝과 시작입니다. 정체성의 차이, 타고난 환경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 경쟁에서의 낙오, 불안사회의 위협으로 학생을 겁주는 교육, 학생을 단속과 적발, 처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교육 속에 성장한 사람은 자신도 이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릴까봐, 혼날까봐 겁을 집어먹은 채 성장한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도 겁을 집어먹고, 평생 사회가 조성한 불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유예한 사람에게 행복한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내일입니다.

-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 때리는 행위만이 폭력이 아니라, 모든 차별이 곧 폭력입니다. 또한 모든 폭력은 차별의 고리를 타고 흐릅니다. 차별을 당연시하는 교육, 질서나 '~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을 죽이는 교육, 차별을 외면하는 교육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에 맞설 때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도 따리를

틀기 어려워집니다.

-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 책임은 자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말입니다. 책임은 자유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자유가 책임의 전제조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 결정일 때 그 결과에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받은 사람이 동료와 사회에 대한 정당한 관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틔웁니다.**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낙인, 불이익,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힘도 커집니다.

-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이웃을 대하는 법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힘을 갖고 있듯이, 인권을 존중받아본 사람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힘을 갖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방관자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변화의 핵심 의제로 삼은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성숙해 나갑니다. 실수할 권리, 실수를 통해 배울 권리가 보장돼야 성숙할 기회, 책임질 기회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수가 치명적 실패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민주주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배움을 익혀가는 교실에서부터 경험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을 민주적으로 대하는 사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